

20세기에 나타난 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의 특성

김 서 연 · 박 길 순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미국내 흑인 집단인 Zooties로부터 시작된 20세기의 하위문화는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그리고 스트리트스타일은 이들 하위문화의 독특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수단이었다. 특히 흑인들의 하위문화는 그들이 갖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이들의 스트리트스타일은 자신의 하위문화를 구체화시킴은 물론 현대 패션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문화와 패션에 영향을 미친 흑인 스트리트스타일의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시기별·요인별로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시기별로 등장한 흑인 스트리트스타일은 1940년대 초반의 Zooties와 1940년대 후반의 Hip Cats, 1950년대의 Modernists, 1960년대의 Rude boys, 1970년대의 Pimp와 Rasta, 1980년대의 B-boys와 Raggamuffins, 1990년대의 Acid jazz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흑인 스트리트스타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이는 최초의 스트리트스타일인 Zootie style이 하위문화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유한 백인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된 사치스럽고 과장된 Zootie style이 2차 대전 중 의복의 유형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서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스트리트스타일뿐 아니라 하위문화의 저항적인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는 백인 사회내의 흑인인권운동, 흑인부흥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슬람교도인 말콤 X와 기독교도인 마틴 루터 킹이 주도한 미국내 흑인인권운동들이 종교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미국내 흑인의 권익을 강조한 것과 달리, 고대 에디오피아 왕국의 부흥을 상징적으로 내세운 Rastafarian 운동은 에디오피아의 국기 색상인 빨강, 노랑, 초록의 사용, dreadlocks와 tams(니트 모자의 일종), 천연직물 의복과 아프리카풍의 긴 스커트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로의 회귀에 대한 간절한 바램을 표현한 rasta style로 나타났다.

셋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대다수 흑인의 빈곤한 생활에 대한 반발과 부유한 백인사회에 대한 동경이 흑인 스트리트스타일에 반영된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흑인 계층에 살던 pimp(포주)들이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직물과 금을 사용하여 예로틱한 스타일을 연출한 Pimp style과, 성공한 hip-hop 가수들이 일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의복과 금으로 치장한데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Hip-Hop style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는 문화적 요인, 특히 음악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40년대 초반의 Zootie style이 swing의 영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40년대 후반에 bebop의 영향을 받은 Modernist style, 1950년대 ska의 영향을 받은 Rude boy style 등을 비롯하여 1970년대의 funk와 reggae, 1980년대의 hip-hop과 ragga, 1990년대의 acid jazz에 이르기까지 흑인 하위문화의 많은 부분은 그들의 음악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음악적 특성은 의복의 스타일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흑인 스트리트스타일은 각 시대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백인사회의 우월함을 모방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문화적 양식을 표현하기 위해 형성되고 발달하였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종, 지역의 모든 영역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나타난 흑인 스트리트스타일은 흑인문화를 깊이 이해하도록 함은 물론, 현대 문화와 패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코드라 할 수 있다.